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의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全)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주제 및 강사 결정

# “현대 교회와 인성 회복” 주제로

### 인성 회복 문제의 성경적 해결점 모색코자

우리 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의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제 8학기 목회자 세미나가 오는 9월 4일에 개강한다.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의 주제는 『현대교회와 인성회복』으로 정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건과 사고, 가치관의 혼란 등 갖가지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파파된 인성회복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각계 각층에서 이에 대한 해결점을 교회로부터 찾기를 원하고 있고, 이는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때에 강단을 책임진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학세미나에서 인성회복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이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자각하며, 성경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인성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현대교회와 인성회복』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이다.

제 1교시는 지난 5학기부터 성경의 다이아몬드라 불리우는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는 8학기에는 특별히 아담 안에서 상실된 인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새 사람된 모습을 계시한 로마서 7장 ~ 8장을 『현대교회와 인성회복』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심도있게 강해하는 법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제 2교시는 이 문제에 전문적 지식과 신앙을 가진 국내외 석학들을 초빙하여 『목회자의 인성회복과 교회갱신(김호식 박사),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인성상실과 그 대안』(김영한 박사), 『음란 매체에 의한 인성상실과 그 대안』(김용진 박사), 『기술사회에 의한 인성상실과 그 대안』(맹용길 박사), 『신앙과 인성회복』(안병욱 교수), 『상담을 통한 인성회복』(심상권 박사), 『폭력에 의한 인성상실과 그 대안』(남재현 박사), 『진인회복의 장으로서의 교회』(크라인벨 박사), 『기독교 사회 윤리와 인성회복』(고범서 박사), 『교회 교육과 인성회복』(오인택 박사) 등의 특강으로 진행한다.

##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1995년 9월 4일 ~ 11월 6일(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20분)

### 주제 - 『현대 교회와 인성 회복』

실시일	제 1 교시 14:00 - 15:30	제 2 교시 15:50 - 17:20
9 / 4	로마서강해 (7~8장)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목회자의 인성회복과 교회갱신 김 호 식 박사(예남교회)
9 / 11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인성상실과 그 대안 김 영 한 박사(송실대)
9 / 18		음란 매개체에 의한 인성상실과 그 대안 김 용 진 박사(사랑의 연수원)
9 / 25		기술사회에 의한 인성상실과 그 대안 맹 용 길 박사(장신대)
10 / 2		신앙과 인성회복 안 병 욱 교수(송실대)
10 / 9		상담을 통한 인성회복 심 상 권 박사(기독교 상담문화연구원)
10 / 16		폭력에 의한 인성상실과 그 대안 남 재 현 박사(연세대)
10 / 23		어떻게 교회를 진인회복의 센터가 되게 할까? Clinebell박사(클레어몬트 대)
10 / 30		기독교 사회윤리와 인성회복 고 범 서 박사(한림대)
11 / 6		교회 교육과 인성회복 오 인 택 박사(연세대)

### 각 부서 여름행사

# 활발히 진행중

지난 17일(월) ~ 18일(화), 양일간 가진 당회원 수련회를 필두로 교회 학교와 각 부서의 여름행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일(목) 오전 9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이 한자리에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95여름성경학교는 전교인 가족수련회 기간 중 일부의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하던 예년과는 달리 교회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교회학교들은 "변하는 세상, 변치 않는 예수님"이라는 주제 아래 예배와 성경학습 시간을 가졌으며, 주일의 한정된 여건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인형극 관람, 비디오 관람, 요리와 식사, 특별활동 등 다채로운 순서들을 진행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을 가졌다.

이번 성경학교 프로그램에는 많은 학부모들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번 주에는 중등부가 24일(월) ~ 27일(목), 3박 4일간 포천의 한국중앙수련원에서 수련회를, 사랑부는 27일(목)에 교회당에서 여름성경학교를 각각 진행하게 된다.

### ☉ 교회학교의 남은 여름행사 ☉

부서	강사	실시일	장소
중등부	김재호 목사	7월 24일(월) - 27일(목), 3박 4일간	한국중앙수련원
고등부	김용진 전도사	8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간	가나안 농군학교
대학부	원 호 목 사	8월 8일(화) - 11일(금), 3박 4일간	완택산 기도원
청년부	이만열 전도사	8월 13일(주일) - 16일(수), 3박 4일간	강화도
소망부	전호진 목 사	8월 중순, 2박 3일간	미정
사랑부	임진태 목 사	7월 27일(목)	교회당

창세기 강해



# 장자권을 포기한 에서

(25장 27절 - 34절)

이종운 목사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삭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가버려 여겨 팔족 한그릇에 특권을 팔므로써 망령된 자라고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히12:15-17). “너희가 가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쁨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리 회개하려 해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버렸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복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매우 대조적인 성격을 소유했습니다. 에서는 들을 뛰어 다니며 사냥하기를 즐겨했고 야곱은 부업에서 어머니를 돕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와 배가 고팠던 에서는 부업에 있는 야곱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야곱은 배고픈 형에게 팔족과 장자권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야곱도 야비하지만, 오늘 본문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에서에게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25:34).

### 1. 장자권의 유익

장자권은 에서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유산을 두배나 가질 수 있는 물질적인 특권이외에도 한 가정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영적인 복도 약속되어 있습니다(신 21:17, 대상5:1-2). 더군다나 아브라함 가문에서 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곧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25:32)하며 식물(食物)과 장자의 특권을 바꾸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혹시 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자권의 중요성을 보여 주신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 2. 장자권의 포기

‘먹고, 마시고’는 에서의 성품을 대변해 주

는 단어입니다. 그의 생활 철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가 성공하는 것이 바른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영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선민입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긴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 망령되었다고 책망을 받았고 그의 후손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 3. 장자권의 상실

에서의 망령된 행동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구원의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유익을 상실한 자입니다. 복음의 최초의 선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을 확인시켜주시고 반복하여 선언했지만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인생들은 구원의 주가 오시는 날 그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고 원수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바로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함으로써 침륜에 빠집니다. 육신의 안일을 좇아 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특권을 쉽게 포기하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능력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에서가 살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반면 오늘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것과 같이 망령된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몇푼이나 세상의 적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고 말씀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일, 매일 새벽, 그리고 라디오 등 각종의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소홀하다면 그것은 마치 에서가 팔족 한그릇

에 장자권을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두려울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통한 특권을 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상실하는 것은 불행한 일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분주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좇느라 바빠서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경홀히 여기고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여 갖가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처회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좇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우리일까 보나”(히12:18-25)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특권은 하나라도 잃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순례자 컬럼

###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앞에 부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옥합을 깨뜨린 것이다. 그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아픈 마음에 동참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리아의 슬픔과 오욕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죽음에 이제는 자기가 함께 슬퍼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 여인은 예수의 발앞에 바짝 앉아 그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인류의 무거운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그녀는 자문자답을 했던 것이다. 마침내 그녀는 자기의 소유 중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위해 깨뜨려 바치게 된 것이다. 가룟 유다는 이를 말렸으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가만 두라고 하셨다.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되듯 신앙도 삶으로 표출되는 법이다. 옥합을 깨뜨려 향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온전한 헌신이 있도록 기도하자.



'95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하고 나서

#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

박선영(유년부)

다더 기다리던 여름 성경학교! 나는 아침 일찍 친구들과 함께 교회로 향했다. 찬양대 연습을 마친 후 예배를 드렸다. 이종운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 제사장, 선지자이신데,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셨다.

유년부 교실로 가서는 재미있는 게임과 함께 즐거운 운동을 배웠다. 『지민이의 소원』이라는 인형극도 보았다. 나쁜 짓만 골라하던 지민이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착하게 되는 내용이였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교회 여름성경학교에 와서 인형극을 보고 지민이처럼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맛있는 간식도 먹고 선물도 받고 무엇보다도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텐데...

참 즐겁고 재미있었던 여름성경학교였다. 다음에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해서 같이 교회에 와야지!

# “두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우리 (초등부)

“변하는 세상, 변치 않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경학교에 많은 친구들과 함께 참석하여 말씀을 배웠습니다.

첫째날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와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활동이었던 ‘언어장애의 밤’, ‘약함 체험의 밤’ 등을 조원들과 함께 하면서 조원끼리의 협동심도 생겼을 뿐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심정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날, 이 날은 더욱 더 우리를 설레게 했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성극, 나는 꼬마 요리사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저녁에는 캠프 화이어로 하루 종일 신나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특히 캠프화이어 시간에는 그 동안 생활 속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 회개하고 세상의 빛이 되

기를 결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당에서 밤을 지내면서 (물론 잠자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낯설던 친구들과도 너무 너무 친해질 수 있었고 아울러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고 싶은 마음도 커진 기회였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아쉽기만했던 셋째날.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잊지 못할 은혜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더욱 더 사랑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때에 배우고 생각하고 결심한 것들이 식지 않고 내년 이맘 때에는 조금 더 자라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 7월 새가족 환영회

30일(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새가족 환영회를 가집니다.

7월에 등록된 새가족 여러분께서는 예배 시작 전에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 좌석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아 주십시오.

■ 사진으로 보는 '95 여름성경학교-

## “즐거운 여름학교 믿음의 동산, ... 진리의 성경말씀 배우러 가자”



“모처럼 많은 시간동안 교회 선생님, 교회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 성극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배우고 나니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가지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 때에도, 설거지를 할 때에도 서로 도우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니 기뻐다.” - 95년 7월 21일, 초등부 학생 K군의 일기 중에서 -

■ 내가 본 중국교회

# “목마른 사슴처럼”

김 선 미(권사)

**마**치 해방 전, 우리나라의 모습같았다. 5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출퇴근 거리도 자전거 뿐이니 교통사고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과 물질적 복을 받은 것을 감사치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간 길림성 ○○○ 기독교회는 81년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였다고 한다. 현재 중국인 교회가 스무 곳, 조선족 교회가 스무 곳이 되는데 85년에 기독교의 종교가 자유화 되었으나 목회자가 없어 54세 된 권사가 수십 개의 교회를 돌보고 있고, 그의 28살된 딸도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어려운 교회 형편에도 우리가 간다는 소식을 접한 그들은 연합예배를 준비하고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여 앉아 몇 시간 전부터 찬양하며 준비하고 있었다. 꼭 들어찬 성도들의 열기만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였다.

수요예배는 장춘에서 드리고 옛 봉천인 심양의 서탑교회를 방문하였다. 매주일 새신자가 20명이 넘지만 관리와 교육이 잘 안되니 이단에 넘어지는 신자의 수가 많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들었다. 설교자가



부족하니 젊은 집사가 설교하기도 하고, 교육할 사람이 부족하니 신학교도 2년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들의 어려운 교회환경과 열심히는 신앙생활을 볼 때, 우리의 형편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훌륭한 말씀이 풍성히 있고, 자유로운 배움의 기회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첫사랑의 열심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 같다.

조선족 기독교인인 박집사는 5년전 주님을 영접하고 체험적 신앙으로 복음 전파를 위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였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북한에도 몇 번 갔었는데 조그마한 성경책을 선물하면 너무나 좋아한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한국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생기면 다시는 북한 땅을 밟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다면서 “만약 중국에 오시는 분들이 조그마한 성경책을 가져오신다면 전도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우리 일행에게 중국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중국의 신앙인들은 갈급해 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다. 대부분 공예배의 처소는 가정이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매체나 형식이나 신학체계들은 열악하기만 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처음 영접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은 넘쳐 흘렀다. 그 순수한 사랑에 우리도 새로운 도전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복을 감사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새삼 감사하게 되었다.

■ 광야의 소리

## 그리스도인의 여/름/나/기 - ②

여가 - “한적한 곳으로 ... 좋은 것을 찾아”

**금**과 노동 신성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가를 말하는 것은 왠지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 것처럼 일로부터 안식할 줄 아는 것도 인간의 필요조건으로 성경에 제시된 바이다.

여가의 어원을 보면 ‘허락되다’, ‘합법적이다’ 혹은 ‘면허증’이라는 뜻이 있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고 풀이할 수 있

다. 좀 더 연구해보면 ‘학교(School)’ 라는 말과 어근을 같이 하기도 한다. 한 개인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를 바탕으로 ‘멈추다’, ‘그만두다’ 는 개념이 있다. 여가는 여러가지 기회를 우리에게 선물한다. 또한 여가는 우리 자신, 다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된다. 그 신학적 기초는 창조질서 가운데 심으신 안식의 원리에 있다.

활동적인 생활이 안식과 함께 잠깐 멈출 필

요성은 예수님의 본을 통해 확실하게 볼 수 있다. 공생애 기간동안 바쁘신 예수님께서도 휴식의 시간을 가지셨고 휴식을 권하시기도 하셨다. “무리와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에 가시다...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막6:45-47),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막6:30-32). 또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 하는 마르다에게 일의 강박감에서 벗어나 주님 발 앞에 있는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라”(눅 10:38-42) 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다.

일을 탁월하게 하는 것이 도덕적인 미덕이라면, 여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균형있고 창조적이며 탁월하게 누려야 할 청지기적 책임도 있음을 기억하자.

■ 교우동정 ■

· 최용걸 집사(12교구, 수지 다락방)는 21일(금), 동수원에 『최용걸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0331 - 257 - 4231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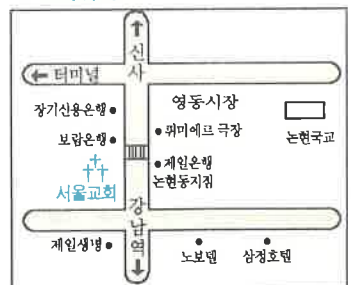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라디오 강단」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2. 농어촌 교회의 자립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4. 남은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준비할 수 있도록